

Alendronate에 의해 유발된 식도궤양 1예와 위궤양 1예

경희의대, 내과학교실

정용희, 장영운, 채명중, 이병욱, 한요셉, 동석호, 김효중, 김병호, 이정일, 장 린

Alendronate(Fosamax)는 primary bisphosphonate 제제로서 파골 세포에 작용하여 골흡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alendronate는 골다공증, Paget씨 병, 악성 종양에 의한 고칼슘혈증 등의 골흡수가 증가된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다. 또한 alendronate는 경구투여가 가능하여 투여가 간편해졌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소화기관의 부작용으로 식도궤양과 위궤양이 가장 흔히 관찰된다. 1995년 alendronate 개발이후에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보고가 많이 발표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고가 거의 없다.

최근 보고자들은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복용한 alendronate에 의하여 발생한 식도궤양 1예와 위궤양 1예를 경험하였다. 식도궤양 환자는 76세 여자로서 alendronate 70 mg 1주, 1회, 6개월간 복용 후 흉부 작열감으로 내원하여 상부 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 다발성 식도궤양을 보였고, alendronate를 끊고 6주 후에 추적 관찰한 상부 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 궤양이 완전 치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위궤양 환자는 65세 여자로서 alendronate 70 mg 1주, 1회 2주간 복용 후 발생한 심외부 동통으로 내원하여 상부 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 급성 활동성 위궤양을 관찰하였다. 복용 중단 후 추적 관찰한 상부 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 궤양이 완전치유 되었던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alendronate가 탁월한 골다공증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위장관 궤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횡격막상부 식도계실을 동반한 식도 이완불능증 1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황성준*, 조준식, 박효진, 이상인

횡격막상부 식도계실은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위식도 접합부 상방 약 10cm 이내에서 점막낭이 근육층으로 돌출한 상태이다. 병인은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이 압출성으로서 식도 내압이 증가하여 근육층을 통해 점막층과 점막 하층이 탈출되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식도운동장애가 동반되어있다. 식도 이완불능증과 동반되어있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로는 일반적으로 식도계실 절제술 및 근절개술이 권유되고 있으나 연자들은 식도 이완불능증과 횡격막상부 식도계실이 동반된 환자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통한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증상 호전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49세 여자가 약 2년 전부터 고형 및 액상 음식에 연하곤란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환자는 9년 전에 타 병원에서 식도 이완불능증 진단 후 Heller 근절개술 시행 받았으며, 약 2년 전부터 증상이 재발하여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의 호전 없이 지내 왔다. 가족력,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혈액 검사와 흉부 X선 촬영은 정상 소견이었다. 식도내압 검사에서 식도체부의 무운동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도관이 위식도접합부를 통과 못하여 하부식도괄약근압은 측정하지 못하였다. 식도 조영술상 식도 하부는 새부리 모양으로 좁아져 있었고, 그 상부가 확장된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위식도 접합부 직상방에 약 3cm 크기의 계실이 발견되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상 식도 내강이 전반적으로 확장된 소견과 식도와 계실 내 음식물의 저류가 관찰되었고, 위식도접합부직상방에서 계실이 발견되었으며, 위식도접합부를 통과시 저항이 느껴졌다. 환자는 불완전한 Heller 근절개술에 의한 식도 이완불능증의 재발로 진단 후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통한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으며, 풍선확장술에 의한 합병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풍선확장술 3일 후 식도조영술과 식도통과주사를 시행하였으며 식도 조영술에서는 조영액의 통과가 다소 용이해진 소견이 관찰되었고, 식도통과주사상 30초 후 동위원소 잔유율이 치료 전 38.7%에서 치료 후 9.3%로 호전을 보였다. 환자의 증상은 호전되었고, 현재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